

사회 이슈

10824 최준오

1. 사회 현안

인테리어 관련 피해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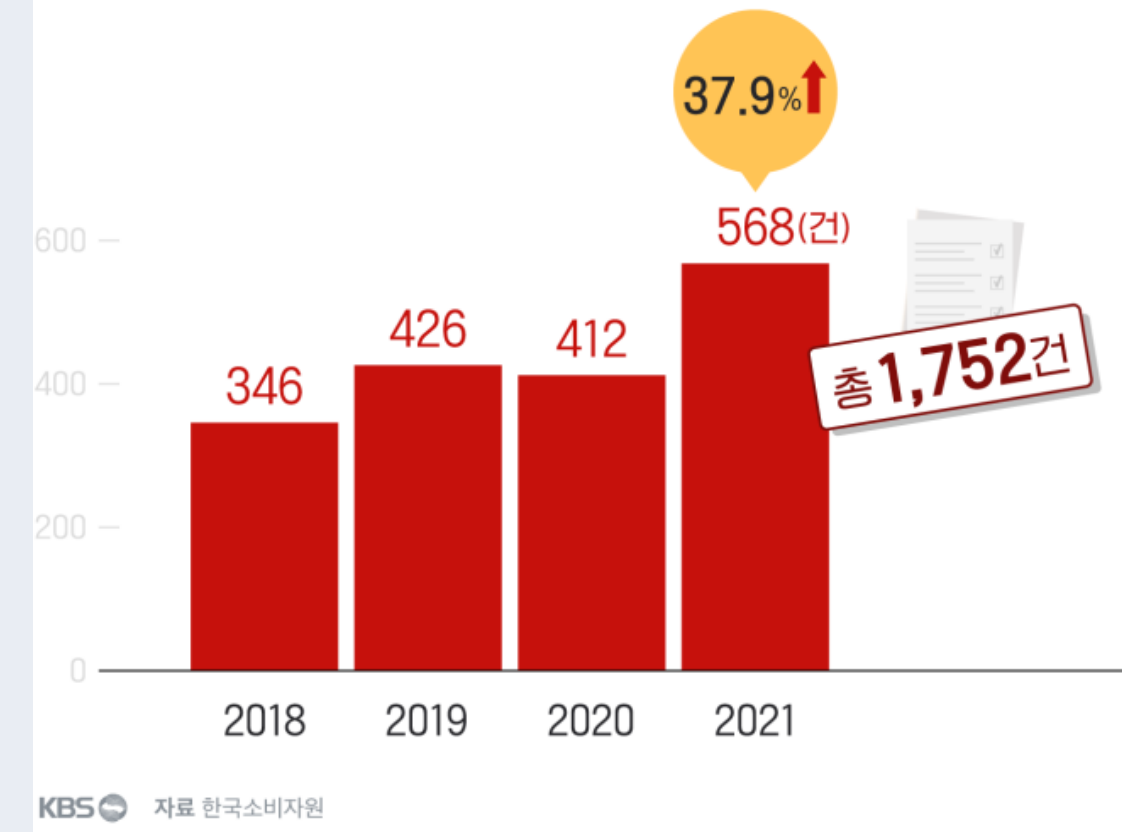
코로나 19 확산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으로써 최근 '집'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먹고 자는 곳이 아닌 '홈 오피스', '홈 스쿨', '홈 파티' 등이 가능한 다기능 공간이 되었고 홈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관련 산업도 크게 성장했다.

문제는 홈 인테리어 시공이 늘면서, 관련 피해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.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모두 1752건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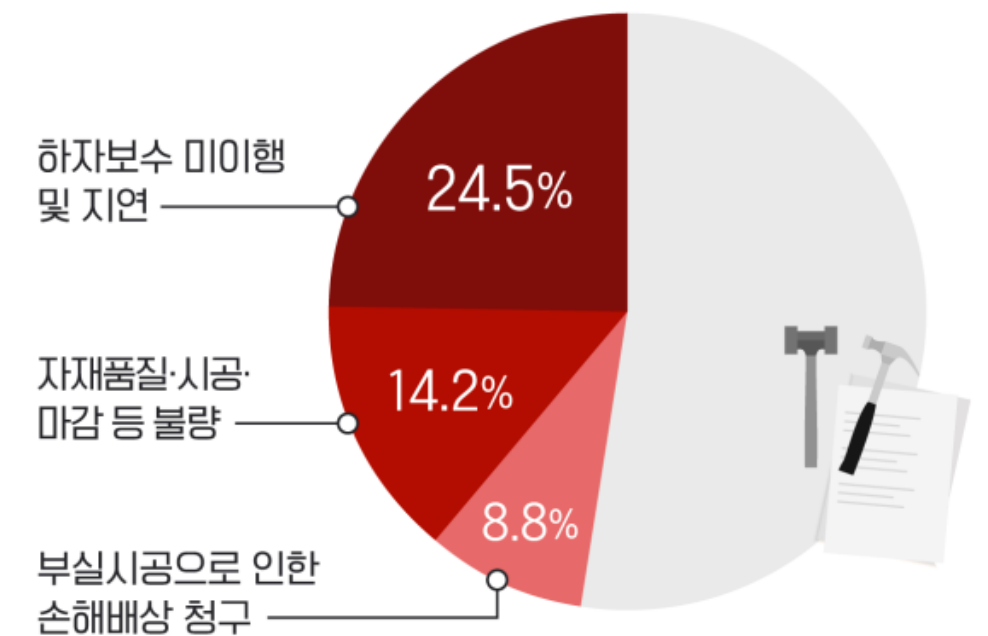
소비자 피해 유형은 하자보수 미이행 및 지연이 24.5%로 가장 많았고, 자재품질과 시공·마감 등 불량 14.2%,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8.8% 순이었다.

하지만 본사에서 하사 보수 책임은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.

인테리어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



홈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피해유형



2. 당사자의 입장



**화가 난다.
법정 대응을 해 피해 보상을 요구 받고 싶다.
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.**

3. 자신의 견해

**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지낸다고 할 수 있는
집에 돈을 줬지만 저런 피해를 주는 업자들이 화가
나고 피해자들이 정말 안타깝다.**



4. 해결 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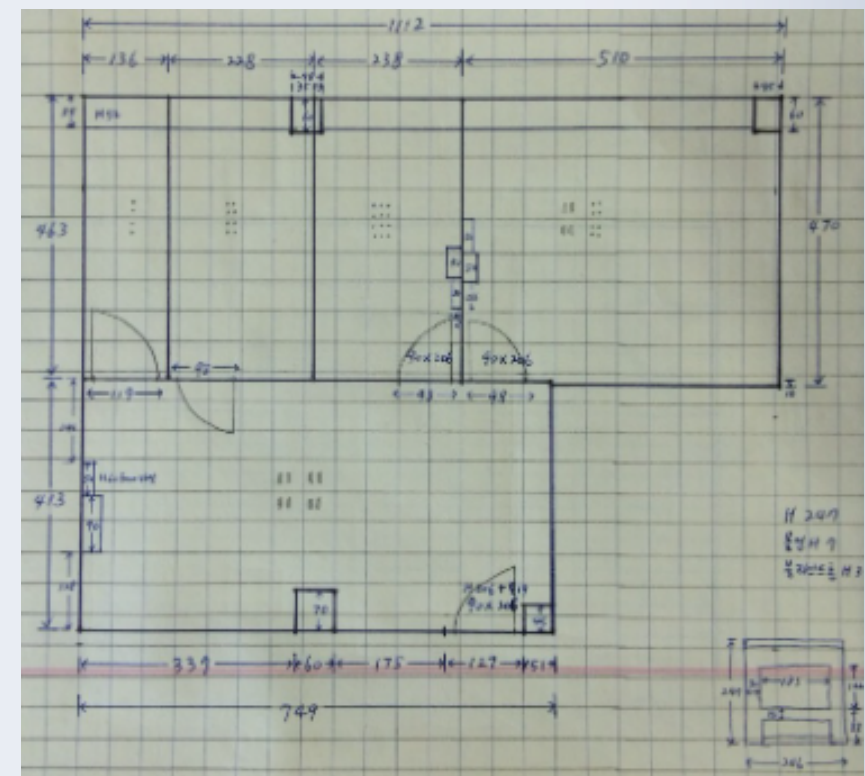
대규모 공사를 할 경우 '전문'건설업'으로 등록된 업체를 택해야 계약 불이행이나 하자 발생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.

계약서도 꼼꼼하게 작성해야 한다. 계약서가 없이 공사한다면 불이익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. 또한,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브랜드와 명칭, 규격 등을 계약서에 기록으로 남겨야 계약서 내용과 달리 저가 자재를 쓰는 일을 막을 수 있다.

좋은 경험을 했던 소비자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기

공사 의뢰에 앞서 업체에게 내가 원하는 컨셉을 전달해주거나 원하는 구조를 도면으로 그려서 전달해주면 좋다.

공사 초반과 문제될 것 같은 공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, 그 외에도 가급적 하루에 한 번은 현장에 나간다.



출처

<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56/0011255296?sid=101>

https://blog.naver.com/jianlaw_blog/221391437598

<https://blog.naver.com/micom2019/222307430356>